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하이테크 패션의 미적 특성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

나 현 신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High-tech Fashion through Hussein Chalayan's Works after 2000

Hyun-Shin Na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7. 12. 17. 접수; 2008. 2. 14. 수정; 2008. 4. 25. 채택)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overturned the paradigm of the entire society and culture, and the term 'high-tech' became generally accepted around the world by the momentous advances of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high-tech fashion by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high-tech fashion, and to propose the proper approach toward the coming fashion. Hussein Chalayan shows the experimental and futuristic designs based on the cultural context of architecture and sculpture. Moreover, the scope of this study has been limited into Hussein Chalayan's recent works after the year 2000 up to 2007.

High-tech architecture has been, in some ways, a response to grow technology a new aesthetic in contrast with standard modern architecture. High-tech architecture aimed to achieve a new industrial aesthetic, spurred on by the renewed faith in the progression of technology. However, no matter how prominent the industrial look appeared, the functional element of modern architecture has been very much retained. The characteristics of high-tech architecture that had been extracted by analyzing the antecedent studies were: technocism, transformability, and dynamism.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high-tech fashion has been explain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igh-tech architecture. First, technocism is expressed either by the new technologized materials, and advanced digital technology. Second, transformability is expressed in the transformable clothing, which performs various functions. Third, dynamism is displayed in dynamic forms influenced by the technology of engineering.

High-tech will be the dominant influence in fashion, and the designers will be enamored with the technologies of the new millenium. Architecture and fashion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high-tech, and their common cultural features is confirmed again.

Key Words: High-tech(첨단기술), Technocism(기술성), Transformability(가변성), Dynamism(역동성)

Corresponding author ; Hyun-Shin Na
Tel. +82-2-970-5629, Fax. +82-2-970-5979
E-mail : hsna@swu.ac.kr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I. 서론

“제 3의 밀레니엄(the third millenium)”을 맞이하는 21세기는 고도의 과학기술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성숙기로, 유전공학, 바이오기술(BT), 나노 기술(NT) 등 하이테크(high tech) 기술의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¹⁾. 하이 테크놀로지의 약어인 하이테크는 전자·반도체·컴퓨터·로봇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활 각 분야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여 현대인의 총체적인 삶을 변화시켰다. 기술의 목적은 기계문명과 공존을 통해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은 미래상으로만 제시되었던 산업형태와 생활문화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새로운 형태의 문화와 예술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의 21세기 디자인 문화는 과학기술과 경영이 예술문화, 즉 뉴 디자인으로 응축된 21세기형 ‘신 르네상스 시대’²⁾를 꽃피울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산업 발달은 진보적 건축가들에 의한 기계적이고 산업미학적인 하이테크 건축을 탄생시켰고, 패션 디자이너들 역시 첨단 테크놀로지에 근거한 사상과 감각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패션을 다양하게 창조해 왔다. 출현 당시 첨단 기술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새롭고 진보된 기술의 출현으로 낙후된 기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이테크라는 용어는 시간의 개념과 함께 하는 시의성을 갖는다³⁾. 최첨단의 과학 문명과 예술의 결합을 추구하는 패션의 하이테크는 혁신적인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과 급진적 디자인으로 테크니시즘의 정수를 나타내고 있다.

복식은 회화나 조각과 같은 순수 미술과는 달리, 공간 예술의 분야이자 대중과 긴밀한 문화의 일환으로, 건축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낸다. 복식과 건축은 인체를 기점으로 출발된 조형물로서, 인간의 삶과 연결 고리를 함께 하는 근원적인 피사체이다. 또한 각각은 인간을 둘러싼 미시적·거시적 환경으로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을 각자의 색깔을 이룬 미학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승화시켰다⁴⁾. 이상과 같이 건축과 복식, 상호간의 조형적 유사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하이테크를 뉴밀레니엄 패션을 설명하는 키워드의 하나로 선정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테크의 미적 특성을 건축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하이테크 건축의 미적 특성을 선행 연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출하고 그 특성을 하이테크 건축의 실례를 통해 규명하였으며, 현대 패션 디자인에 하이테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을 건축에서 도출된 조형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후세인 살라얀에 대한 선행연구⁵⁾는 그의 작품을 해체적 디자인 및 실험적 디자인으로 접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조각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바탕으로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는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을 건축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하이테크 패션의 실증적 분석 대상으로 접근하였다. 현재 활약하고 있는 여러 디자이너 가운데, 후세인 살라얀은 건축과 조각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더불어 첨단 하이테크 소재와 기법을 통한 발상 표현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나는 건축, 과학 혹은 자연과 같이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신체의 역할을 고찰하여 이 접근방법을 의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연구결과를 의복으로 바꾸려는 실험을 한다’라는 그의 말 속에서, 후세인 살라얀이 신체와 건축, 조각에 관심이 많은 개념론자임을 알 수 있다⁶⁾.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과 과학의 관계가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는 오늘날, 현 패션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하이테크의 특성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양식으로 존재하는 현대 패션의 흐름 가운데 하이테크 패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디자인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는 또한, 패션 산업에서 첨단기술을 수용한 독창적인 디자인 창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우선, 하이테크 건축의 개념 및 정의, 출현 배경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선행 연구된 학위 논문과 관련 전문 서적을 참고하였고, 하이테크적 미적특성이 내제된 후세인 살라얀의 최근 작품을 살펴보고자 연구의 범위를 뉴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부터 2007년까지로 한정하고 패션관련 작품집과 그의 홈페이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I. 하이테크 건축

1. 개념 및 발생 배경

하이테크 건축의 발생 배경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미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산업 혁명 이후에 등장한 기술자들은 공학에서 쓰이는 기술과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냈으며, 근대에 들어서 진보적인 건축가들은 기계라는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내고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시하여 이를 건축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였다⁷⁾.

이처럼 고도의 기술 집약 산업과 선진국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생겨난 하이테크 건축의 명칭은 1960년대 후반, Team-4가 디자인 한 릴라이언스 콘트롤즈사(Reliance Controls Factory)에 최초로 붙여졌다⁸⁾. 그 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 리차드 로저스(Richard Rogers), 렌조 피아노(Renzo Piano) 등의 건축가들이 하이테크 건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이테크 건축의 기원은 노출의 미학이 본격적인 건축 개념으로 거론된 브뤼탈리즘⁹⁾으로 볼 수 있다. 초기에는 브뤼탈리즘적 성향의 하이테크 건축이 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 프로그램의 건설 분야에서만 실험되었다. 그러나龐피두(Pompidou) 센터가 1970년 파리 보부르(Beaubourg) 문화센터 국제 현상 설계 대전에 선정되면서, 하이테크 건축은 국제적인 관심을 얻게 되고 공장을 비롯한 사무소와 미술관 건축, 그리고 주거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전 분야에서 각광받는 새로운 건축적 태도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¹⁰⁾.

하이테크 건축은 60년대 이후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하이테크라는 개념이 건축의 개념이 아니라 가벼운 장식이나 최소량의 요소를 조합한 가구나 기본적인 색상의 범주 내에서의 선택을 의미하는 실내 장식으로서의 산업적 스타일의 경향을 하이테크라 칭하고 있다¹¹⁾.

큐레이터이자 비평가인 피터 뷰케난(Peter Buchanan)은 1983년 하이테크 건축을 '건축의 생산과 조립과정 뿐 아니라 표현 영역에까지, 현대 공업 기술 역량에 의한 재료, 구조법, 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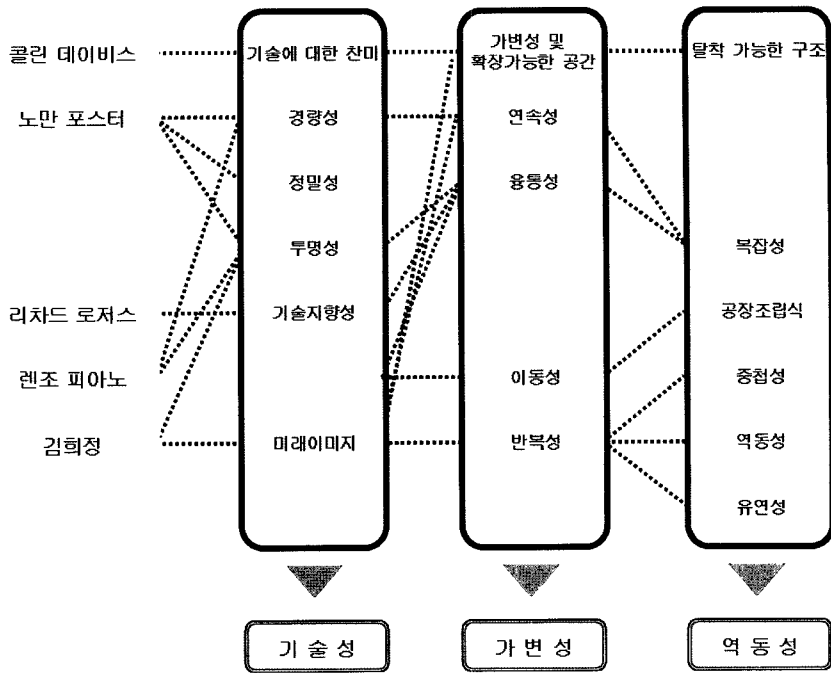
시공방식, 설비 기술의 경로를 도입하여 기술적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는 건축¹²⁾'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이테크 건축"의 저자 콜린 데이비스(Colin Davis)는 '건축의 기능과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재료와 구조법 및 시공분야에 기존 개발된 공업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기술 자체에 내재된 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 종래의 기술주의적 건축이 보여주었던 부정적 이미지를 현대 자본주의 이념과 근접된 친근한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건축적 흐름을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정의하였다¹³⁾ 하이테크 건축은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 느낌이 주는 하이테크놀로지적 분위기로 마치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건축물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건축의 일부로서 현대 기술이 제공하는 최상의, 최적의 기술적 성과를 채용하고, 가장 현실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공간 및 형태를 반영한다¹⁴⁾.

결론적으로, 하이테크 건축이란 공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구조체계의 표현을 극대화시킨 현대 건축의 특정 양식으로¹⁵⁾, 매끈한 표현 혹은 아름답게 조형된 자체에서 기계적이고 산업미학적인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써 결과물의 질을 높여가는 건축의 한 유형이다¹⁶⁾.

2. 하이테크 건축의 미적 특성

본 장에서는 하이테크 건축의 미적 특징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 언어들에 수집·분석하여 하이테크 건축의 대표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하이테크 건축의 실례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콜린 데이비스는 하이테크 건축의 특징을 기술에 대한 찬미, 가변성 및 확장 가능한 공간, 탈착 가능한 구조 등에서 찾았다¹⁷⁾. 김희정은 다양한 형태언어로 표출된 하이테크 건축으로부터 투명성, 역동성, 반복성, 미래 이미지, 유연성, 중첩성, 가변성, 연속성의 8개의 개념 언어를 도출하였고, 하이테크 건축의 대표적인 작가인 노만 포스터, 리차드 로저스, 렌조 피아노 각각의 작품 사례에서 하이테크 건축을 다양한 디자인 개념 언어로 설명하였다¹⁸⁾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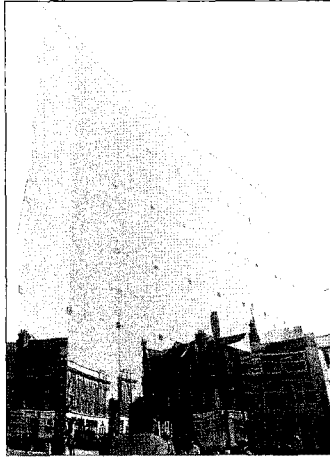
<그림 1> 하이테크 건축의 미적 특성 도출의 도식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이테크 건축의 미적 특성을 세가지로 귀결하였다. 첫째, 기술에 대한 찬미, 경량성, 정밀성, 투명성, 기술 지향성, 미래 이미지, 등을 기술성으로 집약하였다. 둘째, 가변성 및 확장 공간, 연속성, 융통성, 이동성, 반복성 등을 시스템한 구조에서 비롯된 가변성의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탈착 가능한 구조, 복잡성, 공장조립식, 중첩성, 역동성, 유연성 등을 역동성으로 요약하였다. 다음은 하이테크 건축의 실례를 수집하여 이를 각 특성에 맞추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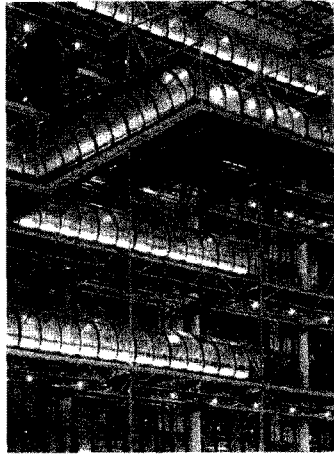
1) 기술성

하이테크 건축가들은 신기술뿐 아니라 신소재를 도입함으로써 하이테크 건축이 갖는 근본적인 개념에 더욱 충실했다. 표면의 재료 선택은 하이테크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철,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과 여기에서 응용된 신소재들은 첨단기술의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한다.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그림 2>의 건축물은 인장력이 강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솔라 글래스(solar glass)로 마감된 것으로, 매끈한 표피는 정밀하고 세련된 하이테크의 기술성을 상징하며 하이테크를 고도의 예술로 전환하였다. <그림 3>의 풍피두 센타는 구조, 골격 자체가 노출된 거대한 강철 조립세트로, 적색, 청색, 녹색의 긴 파이프와 철선이 유리로 덮힌 에스컬레이터를 떠받치고 있다. 하이테크적인 표피의 매끈함을 나타내는 금속성 소재는 공기 노출로 인한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도색, 도금으로 코팅을 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기술지상주의적 건축을 상징한다. 이 때, 하이테크 건축가들은 주로 밝고 선명한 원색을 사용하는데, 이는 대부분이 기술적 장비와 장치들의 색으로 새로움과 신선함의 기계적인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연상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첨단 기술의 소재나 공법에 의한 구조물에서 보여지는 기술성은 실제로 고도의 기술이 접목되거나 마치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 같은 하이테크 감각의 표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림 2> 페버 & 다마스 본사, 1975.
『Architecture Today』,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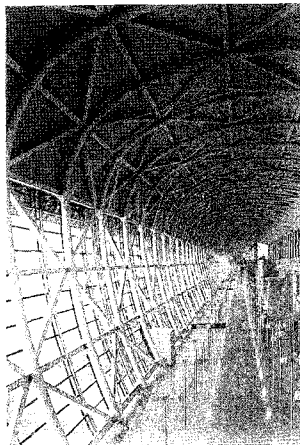
<그림 3> 폼피두 센터, 1971-7.
『Architecture Today』, p.72-73.

2) 가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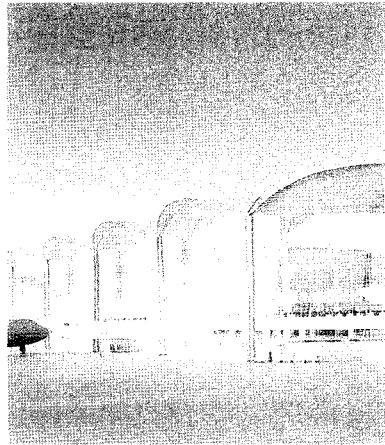
하이테크 건축은 조립식 구조에 의한 시스템의 채용 극대화 속에, 공간, 구조, 설비 등의 가변성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 구조란, 골조에서 외부 벽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도입에 의한 조립식 구조로, 구조체 표현의 결과는 표준화된 부품에 의한 시스템에 따라 동일 패턴 연결에 의한 반복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렌조 피아노의 ‘간사이 국제공항’<그림 4>와 노만 포스터의 ‘책략콕 공항’<그림 5>는 21세기 초현대적인 하

이테크 건축물로서 기계적이고 미래형상적인 첨단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 두 건축물 모두 개별적으로 생산된 부품 기능을 과학적 조작으로 재구성하여 연결한 인터페이스¹⁹⁾에 의한 하이테크 건축의 가변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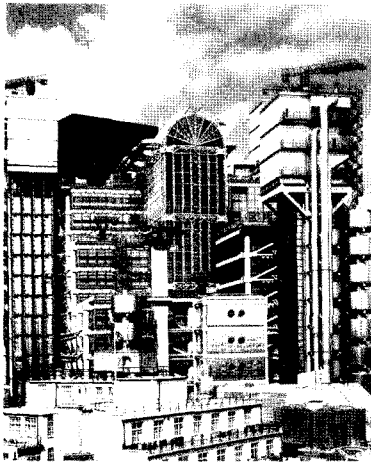
이처럼, 가변성은 규격화된 부재로 구성된 시스템 구조에서 가변적이고 확장 가능한 공간으로 건물의 일부가 해체, 이동 가능토록 하는 하이테크 건축의 한 특성이다.



<그림 4> 간사이 국제 공항, 1988-94.
『Architecture Today』, p.105.



<그림 5> 책략콕 국제공항, 1997.
『Architecture Today』, p.82.



<그림 6> 로이드 빌딩, 1978-86.
『Architecture Today』, p.75.



<그림 7> 풍피두 센터, 1971-7.
『Architecture Today』, p.71.

3) 역동성

하이테크 건축은 구조체 자체가 순수한 형태 표현의 수단이 되므로, 구조가 건물의 형태가 되어 세련된 공학기술의 미를 표현한다²⁰. 건축물 형태가 매끈하고 뚜렷하기는 하지만, 근대의 상자형 건물이나 국제건축 양식같은 엄격함이 배제된 다이나믹한 운동감을 만들어 낸다.

리차드 로저스의 ‘로이드 빌딩’ <그림 6>은 하이테크 건축의 기념비적인 건물로서, 단순한 장방형의 형태에 6개의 타워를 세워 외피나 뼈대를 강조하고, 형태의 상호관계에서 표출되는 리드미컬한 반복적 형태²¹)를 통해 복잡성을 나타낸다. 빌딩 외부의 곳곳에 세워진 크레인들 또한 하이테크 건축의 역동성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요소이다. 건축물의 구조체를 밖으로 드러내고 설비를 위한 배관과 자동 동선 시스템의 오르내리는 모습을 외관에서 강조한 ‘풍피두 센터’는 건축물의 노출된 구조나 설비를 통해 하이테크의 역동성을 표출한다. <그림 7>은 전통적인 박물관의 개념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친밀성을 추구하는 ‘풍피두 센터’의 후면으로, 감추어져야 하는 파이프나 덕트 그리고 굴뚝,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과 보, 이들을 연결하는 원색의 볼트와 너트 등이 시각적인 생동감 넘치는 다이나믹함을 강조한다.

이같이, 역동성은 조형을 이루는 형태, 색채,

재질 등의 여러 요소 가운데,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는 형태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하이테크 건축에서 세련된 공학기술의 미가 역동적인 운동감을 통해 표출됨을 의미한다.

III. 하이테크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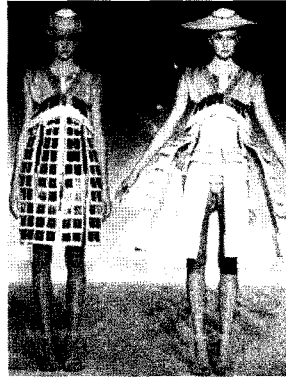
1. 하이테크 패션의 조형적 특성

첨단 테크놀로지가 정보화, 세계화, 다문화된 21세기의 패션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예술 양식이 공존하는 현대 패션을 하나의 양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이 표출된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대로, 하이테크 기술과 현대패션의 접목은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하며 패션에 있어서의 ‘하이테크’로 표현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 있어서의 하이테크란, 테크놀로지와 기계리학을 패션으로 표현하고자하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조화이자, 감성과 이성,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패션 가운데 첨단 기술을



<그림 8> 2007 A/W.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9> 2007 S/S.
http://www.ozoux.comdress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후세인 살라얀의 21세기 작품을 전장에서 규명한 하이테크 건축의 세가지 특성에 맞추어 비교·분석하여, 밀레니엄 패션에서 하이테크의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술성

인간과 과학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짐에 따라, 첨단기술과 소재가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디자인인 폴 토펙(Paul Topen)은 유리나 합성 섬유에서 비롯된 복합 재질과 비행 산업에서 쓰여지는 기술을 1999-2000년 살라얀의 컬렉션 의상에 접목시켰다²²⁾. 이는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필수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비행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자재인 유리섬유(fiber glass)와 접목시킨 것으로, 내장된 무선통신 기기(wireless communication device)의 리모트 컨트롤 작동에 의해 의상의 외관이 비행기 날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변화되는 의상이다²³⁾.

2007 A/W에 발표된 <그림 8>은 마이크로칩으로 작동되는 후드가 달린 모직 코트로서, 오늘날의 첨단기술이 디자이너가 패션을 접근하는 방법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예이다. <그림 9>는 2007년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6벌의 '로봇드레스' 중 하나로, 형태를 변화시키는 자동화 기술과 직물로 표현할 수 없는

하이테크적 영감을 하이테크 메탈 소재를 접목시켜 표현한 의상이다. 이 때 빛을 반사시킬 정도로 매끈하고 플랫한 표면감의 광택, 메탈릭 소재 역시 기계, 기술문명 등을 상징하는 차가운 금속 감각의 기계미를 표현하고 있다. 기술과 더불어 신소재는 매우 다양한 외관과 성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많은 선구 디자이너들에게 받아들여져 기존 의상과는 차별화된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관의 의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21세기를 예고하는 미래 패션 경향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하이테크 패션에서 보여지는 기술성은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첨단의 신 소재를 활용하는 실험적 태도를 미래 생활과 접목시킨 것에 미적 가치의 중점을 둔 것으로, 첨단 기술 환경을 인체 위에 직접 구현함으로써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현대인의 감성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

2) 가변성

첨단 기술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 변화될 수 있는 현대 하이테크 패션의 가변성 영역을 확대시켰다.

후세인 살라얀은 1999-2000 A/W 컬렉션에서 해체적이고 구조적인 모빌 스타일을 가장 실험적으로 시도한 디자인을 선보인 대표적인 디자이너로서 '단순히 입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던 복식에



<그림 10> 2000 A/W.
www.husseinchalyan.com



<그림 11> 2003 A/W.
www.husseinchaly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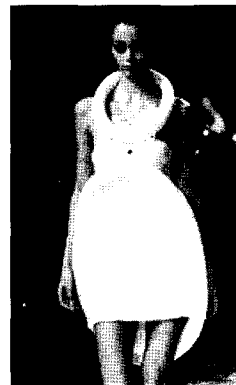
대한 기본 개념을 탈피하여 장르의 범위를 초월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복식을 표현하였다²⁴⁾. 2000년 A/W의 ‘리빙 룸(living room)’ 컬렉션에서는 의상으로 변화되는 의자 커버<그림 10>, 층층이 구성된 둥근 탑 모양의 스커트로 변화되는 커피 테이블, 수트케이스로 바뀌는 의자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용도로 변화되는 가변성을 표현하였다. 2003 A/W에 발표된 <그림 11>은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스커트로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디자인에 내재한 독창적인 변형의 과정들을 그 자체로 드러냄으로서 하이테크 패션의 가변적 특

성을 나타낸다. 시간의 진행에 따라 변화되는 실루엣은 하나의 작품 속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표현효과를 제공한다.

이처럼, 쇼 가운데 펼쳐지는 변형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하이테크의 가변성은 복식이 기본 개념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도구적, 표현적 요구 속에 21세기 패션 트렌드의 중요한 테마로 발전될 것이다.



<그림 12> 2000 S/S.
www.husseinchaly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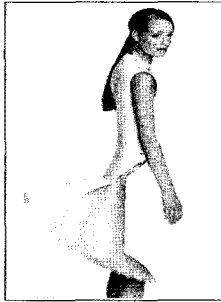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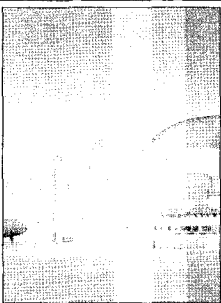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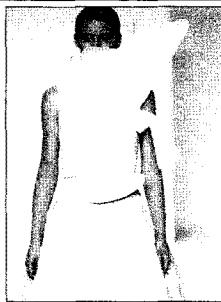
<그림 13> 2006 S/S.
www.husseinchalyan.com

3) 역동성

하이테크 패션의 형태 표현에서 두드러지는 역동성은 실험적인 요소가 강한 미래적 이미지의 독창적인 형태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신소재의 개발과 패션에 있어서의

의식 변화는, 의복의 형태에 대해 고정되어 내려오던 전통적인 관점을 수정하게 되었다. <그림 12>는 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비행기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형태적 과장과 비대칭적인 형태미를 첨단 기술과 소재로 표현한 의상으로, 과학 문명에서 느껴지는 속도감과 역동적인 형태미가

<표 1> 하이테크 건축과 복식의 미적 특성

장르 특성	건축		복식	
기술성				
	첨단 소재나 공법에 의해 첨단공학의 기술미가 표현되는 특성		첨단 기술이나 소재를 통해 첨단 기술 환경이 인체 위에 구현되는 특성	
가변성				
	규격화된 부재로 구성된 시스템 구조로 건물의 일부가 해체, 이동 가능한 특성		서로 다른 형태나 용도로 변화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	
역동성				
	세련된 공학기술의 미가 역동적인 운동감을 나타내는 형태로 표현되는 특성		21세기 공학기술의 미가ダイナ미한 형태적 측면에서 부각되는 특성	

느껴지는 작품이다. 1999-2000년 A/W 콜렉션에서 자동차 좌석의 머리받침 모양에서 착안한 pillow collar(-pillow collar)가 달린 백 레이어드 드레스(back layed dress)와 2006년 S/S 콜렉션에서 발표된 <그림 13>의 의상은 기존의 의상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 개념에서 왜곡되어 미래적인 이미지와 세련된 공학미를 입체적인 실루엣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균형과 대칭에서 일탈된 하이테크 패션의 실험적인 형태미 속에 역동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하이테크 패션의 역동성은, 21세기 공학기술의 미가 기존의 형태 개념을 파괴하고 첨단 기계를학을 느낄 수 있는 다이나믹하고 실험적인 형태를 표출함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하이테크 건축과 복식의 미적 특성 비교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하이테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아래의 <표 1>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장르 모두, 기술성, 가변성, 역동성의 특성을 나타내며 첨단기술의 미학을 표출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술성은 하이테크적 소재나 공법에 의한 건축과 첨단 기술이나 소재를 활용하는 실험적 태도와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패션에서 보여지는 특성이다. 가변성은 건물의 일부가 해체, 이동 가능한 조립식의 시스템 구조로 구성된 건축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도와 형태가 변화하는 패션에서 등장하는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역동성은 세련된 공학기술의 미가 역동적인 운동감을 통해 표출되는 건축과 21세기 공학기술의 속도감과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한 외적 형태를 나타내는 패션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처럼 기계적이고 산업미학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하이테크 건축과 패션은,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와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시작으로 각자의 특성에 맞추어 발전되었으며, 이로서 인간의 미시적·거시적 환경으로서의 복식과 건축의 유사성은 다시금 확인되었다.

IV. 결론

뉴밀레니엄 시대는 하이테크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시기로, 이는 현대인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문화와 예술을 창출하였다. 과학 기술 발전에 의한 산업 발달이 첨단 공학의 미를 표출하는 하이테크 건축을 탄생시켰던 것과 같이,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 역시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한 하이테크 패션을 표현해 왔다.

본 연구는 복식과 건축이 가지는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이테크 건축과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때, 패션의 연구 범위는 첨단의 하이테크 소재와 기법을 사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발상의 표현을 시도한 후세인 살라얀의 2000년 이후 작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미래 패션 디자인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서, 새로운 디자인 창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음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하이테크 건축은 공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계적이고 산업미학적인 형태를 만들어낸 현대 건축의 특정양식으로, 산업 혁명 이후의 기술자들은 공학에서 쓰이는 기술과 재료를 이용하였고, 근대의 진보적 건축가들 역시 기계라는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내고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시하여 이를 건축에 접목시켰다. 하이테크 건축의 미적 특성을 선행연구에 비추어 기술성, 가변성, 역동성의 특징으로 분류해서 분석해본 결과, 기술성은 첨단의 소재나 공법에 의한 구조물에서 보여지는 하이테크적 감각을 의미하고, 가변성은 조립식의 시스템 구조로 건물의 일부가 해체, 이동 가능한 특성이며, 역동성은 세련된 공학기술의 미가 역동적인 운동감을 통해 표출되는 특성이다.

패션에 있어서의 하이테크는,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와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하이테크 기술과 현대 패션과의 접목이다.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후세인 살라얀의 2000년 이후 작품을 분석해 본 결과,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 있는 첨단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창의적인 신소재를 활용하는 실험적 태도와 미적 가치에서는 기술

성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첨단 기술 환경을 인체 위에 직접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의 작품들 중에는 복식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도가 변화하는 스타일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가변적인 특성을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하이테크 패션의 역동성은, 21세기 공학기술의 속도감과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한 외적 형태에서 그 특성이 표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하이테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서로 다른 두 장르 모두, 역동성, 기술성, 가변성의 특성을 각자의 색깔을 이룬 미학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승화시키며 최첨단의 과학 문명과 예술을 결합시키고 있었다. 이에, 건축과 복식이 인체를 기점으로 출발된 조형물이자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두 장르 상호간의 조형적 유사성을 재확인하였고, 하이테크 소재와 기법이 21세기의 중요한 테마로 발전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 있어서 후세인 살라얀 뿐 아니라, 21세기 패션에 있어서 하이테크 디자인을 선보이는 다른 디자이너들에 대한 연구도 병행된다면 미래 패션을 전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김자영 (2003). 테크노 패션 디자인의 기능성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2) 정국현 (1999). 21C, 디자인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마케팅* 260(1) pp.33-39.
- 3) 김환식 (2001). 하이테크 건축의 계획특성 고찰. *영동대학교 연구논집* 7, p.249.
- 4) 나현신 (2001).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19C와 20C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
- 5) 김혜영 (2000).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연구. 후세인 칼라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복식* 50(4), pp.5-20.
- 장애란 (2002).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 디자인. *복식* 52(5), pp.91-107.
- 6) Ibid., p.93.
- 7) 성현지 (2005). 하이테크 건축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Santiago Calatrava's 작품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8) 김환식 (2001). Op. cit., p.249.
- 9) 현대 건축에 있어서 브뤼탈리즘은 1954년, 영국의 건축가 부부인 Alison과 Peter Smithson 으로부터 비롯된 독특한 건축적 태도에서 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들이 설계한 헌스 탄톤(Hunstanton)중학교 건축에서는 철골과 블록 재료를 그대로 노출하였고, 특히 급배수관을 비롯한 실비시설의 과감한 노출이라는 인상적인 작업이 최초로 시도되었다.
- 10) 성현지 (2005). Op. cit., pp.10-11.
- 11) Ibid., p.5.
- 12) Peter Buchanan (1983). High-tech: another British throughbred. *Architecture Review* July, p.15.
- 13) Colin Davis (1985). Le High-tech N'est-II Qu'un Style? *L'Architecture Aujourd'hui*, 237(Fevrier), p.42.
- 14) 성현지 (2005). Op. cit., p.7.
- 15) 김희정 (1996). 예술사조에 있어서 하이테크의 조형개념과 그 표현에 대한 환경디자인 모형사례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4.
- 16) 한영호, 이정미 (1990). 하이테크 스타일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논문집* 26, p.426.
- 17) 김환식 (2001). Op. cit., p.251.
- 18) 김희정 (1996). Op. cit., pp.50-77.
- 19) 인터페이스(Interface)란, 개별적으로 완성된 시스템과 시스템이 연결되어 복합적인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성현지(2005). Op. cit., p.36.
- 20) Ibid., p.26.
- 21) 이철규 (1987). 현대 하이테크 건축의 작품경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 22) Fashion Review; In London, Ho-hum ends in smash finale. 자료검색일. 2008. 1. 23. 자료

출처 query.nytimes.com/gst/fullpage.html

23) Runway review. 자료검색일. 2008. 1. 23. 자료

출처 www.style.com/fashionshows/collections/S2000RTW

24) 장애란 (2002). Op. cit., p.92.